

# 최형우 어린이 날 '흠린 선물' 쏜다



KIA 최형우



롯데 이대호

‘흠린 선물’ KIA와 롯데가 시즌 첫 만남을 갖는다.

1위 독주를 이어가고 있는 KIA 타이거즈가 어린이날인 5일 롯데 자이언츠의 안방으로 가 주말 3연전에 돌입한다.

리그를 대표하는 인기 구단인 두 팀은 올 시즌 화제의 팀이기도 하다.

화제의 주인공은 4번. 지난해와 다른 두 팀의 새로운 전력은 바로 고향으로 온 ‘4번 타자’ 최형우(KIA)와 이대호(롯데)다.

두 사람의 계약 소식부터 큰 화제였다. 전주고 출신의 최형우는 FA(자유계약)를 통해 올 시즌 고향팀 KIA 유니폼을 입었다. KBO 사상 첫 ‘FA 100억’이라는 벽을 넘으며 더욱 화제가 됐다.

이대호의 복귀 소식도 프로야구계를 술렁이게 했다.

일본 무대를 점령하고 미국 빅리그에 도전했던 이대호는 올 시즌 고향팀이자 11년

을 입었던 롯데 유니폼을 다시 입고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다. 친정 롯데는 실력과 함께 스타성을 갖춘 이대호에게 ‘150억’이라는 두둑한 금액을 안겨주면서 FA 최고가가 이내 경신했다.

사람들의 시선을 한 몸에 받으며 고향팀 선수로 뛰고 있는 두 사람은 몸값이 아깝지 않은 만점 활약을 펼치며 흥행의 한 축이 되고 있다.

지난 3·4월 최형우는 KIA의 해결사였다. 90타수 33안타, 0.367의 타율을 기록한 최형우는 FA(자유계약)를 넘겼다. 중요한 순간에 4번 타자의 위용을 과시하며 21타점을 만들었다. 이대호도 92타수 39안타로 ‘4할 타자(0.424)’로 맹위를 떨쳤다. 7차례 담장을 넘기면서 18개의 타점도 올렸다.

4번을 중심으로 목적해전 양 팀의 타선은 새로운 힘이 됐다. 두 사람의 유니폼은

## KIA-롯데 사직 빅매치...이대호와 4번 타자 대결

### 신예 투수 임기영·김원중 마운드 대결도 흥미진진



KIA 임기영



롯데 김원중

없어서 못 팔 정도로 불타나게 팔려나가기도 하는 등 장외에서도 두 사람의 활약은 이어지고 있다.

4번 타자를 중심으로 한 신바람 행보 속에 관중수도 증가했다.

올 시즌 KIA는 두 차례 매진(2만500명) 사례를 기록하는 등 15경기에 19만2955명을 불러들이면서 1만2863명의 평균 관중을 기록하고 있다. 지난해 평균 관중 1만 0743명보다 20% 증가한 수치다. 사직 구장에서 열린 롯데의 홈 14경기에도 20만 7016명이 찾으면서 평균 관중은 1만4786명에 이른다. 역시 지난해 평균 관중 1만 1842명보다 25%가 증가했다.

두 팀은 각각 고척스카이돔과 잠실 구장의 시즌 첫 매진을 이끌기도 했다.

양 팀 마운드의 두 ‘샷별’에도 눈길이 쏠리는 첫 시리즈다.

KIA 마운드에는 임기영이라는 ‘신예

잠수함’이 있다. 임시 선발에서 3연승을 달리며 확고한 4선발로 자리를 굳힌 임기영은 사직에서 열리는 주말 3연전에서 6번째 선발 등판에 나선다. 지난 4월30일 NC전에서 시즌 첫 패배를 기록했지만 막강 타선을 상대로 6.2이닝 4실점(3자책)으로 분전했다.

롯데에는 김원중이라는 신무기가 있다. 광주 동성고 출신의 김원중은 자신의 프로 첫 선발 등판이었던 4월1일 NC 타선을 5이닝 1실점의 막으며 데뷔 첫 승을 기록했다. 그리고 부진으로 잠시 2군에서 재경비를 한 그는 복귀전이었던 지난 30일 두산을 상대로 두 번째 승리를 낚았다. 김원중은 고향팀을 상대로 3승에 도전할 예정이다.

어린이날 맞게 된 흥행의 두 팀, 사직이 야구 열기로 뜨겁게 달아오르게 된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 ‘여자 배구계 메시’ 김연경 FA...몸값 천정부지

## 터키·유럽·中·日까지 러브콜...액자시바시 “연봉 34억”

### 김연경 “국가 대표 일정 감안...좋은 리그서 뛰고 싶어”

2016-2017시즌 터키 여자배구리그 챔피언결정전은 페네르바체 3연 우승으로 끝났고, 그와 동시에 ‘배구 여제’ 김연경(29)은 FA 자격을 취득해 자유의 몸이 됐다.

‘여자 배구계의 메시’라는 극찬이 쏟아지는 김연경을 두고 세계 배구계의 이목이 쏠린다. 세계 최고의 ‘거포’ 김연경을 영입하는 팀은 당장 우승에 도전할만한 전력을 갖추 수 있기 때문이다.

김연경은 3일(한국시간) 이스탄불 부르한펠레크 볼레이볼살론에서 열린 터키리그 챔피언결정 3차전 갈라타사라이와 경기에서 11득점을 올리며 팀의 3-0 승리에 힘을 보탤 예정이다.

페네르바체는 김연경을 앞세워 통산 5번째이자 2년 만의 우승을 차지했다. 챔피언결정전에 앞서 ‘이적설’이 나왔을 때 “모든 게 끝난 뒤 거취를 밝혀겠다”고 밝혔던 김연경의 선택도 머지않았다.

김연경은 지난해 6월 배구 전문매체 ‘월드오브발리’가 공개한 여자배구 선수 연봉 순위에서 120만 유로(약 14억5000만 원)로 주팅(중국·110만 유로)과 타티야나 코셀레바(러시아·100만 유로) 등을 제치고 1위에 올랐다.

유럽배구가 정확한 연봉을 공개하지 않아 ‘비공식’ 1위지만, 세계 여자배구계에

서 김연경의 위치를 입증할만한 수치다. 이러한 가운데 월드오브발리는 지난해 페네르바체의 라이벌 구단인 액자시바시가 김연경 영입에 최대 300만 달러(약 34억 원)의 연봉을 준비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에 김연경의 에이전트 인스포코리아는 “선수 본인도 모르는 이야기”라고 잘라 말했다.

이제 ‘자유의 몸’이 된 김연경을 두고 터키리그와 유럽 팀은 물론이며 막강한 자금력을 앞세운 중국과 일본까지 러브콜을 보내고 있다.

김연경은 챔피언결정전 우승 직후 “좋은 리그여야 하는 건 말할 것도 없고, 국가 대표 일정과 잘 맞는지 봐야 할 것 같다. 유럽리그는 너무 늦게 끝나 대표팀 일정과 조율이 힘들었다”고 타 리그 이적 가능성을 열어뒀다.

터키의 불안한 정세도 김연경의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슬람국가(IS)의 영향권인 터키는 크고 작은 테러가 끊이지 않는다. 지난해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대통령에 대한 쿠데타가 실패로 돌아간 뒤에는 국내 소요사태도 상당하다.

하지만 잔류 가능성도 충분하다. 터키리그는 세계 최고 수준으로 인정받



지난 2일 밤(현지시간) 이스탄불 부르한펠레크 볼레이볼살론에서 열린 터키 여자프로배구리그 챔피언결정전 3차전에서 갈라타사라이를 꺾고 우승한 페네르바체호의 김연경이 우승컵에 입맞추고 있다. /연합뉴스

는 데다가, 여자 배구의 인기가 높아 선수 연봉도 최고 수준이다.

김연경은 2011년 터키 진출 이후 페네르바체에서만 뛰었다. 경기장 안팎에서 최고의 대접을 받아 이적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다.

김연경은 2013-2014시즌이 끝난 뒤 러

시아 등 타 리그에서 연봉 20억원 수준의 최고 대우로 이적을 제의받았지만, 페네르바체와 재계약하는 ‘의리’를 보여주기도 했다.

그가 팀에 잔류하든, 리그 내 다른 구단으로 이적하든 가장 높은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 곳도 터키리그다. /연합뉴스

## 국제양궁장·월드컵경기장 보조경기장 오늘 무료 개방

### 광주시, 공공시설 6곳

5일 어린이날을 맞아 6개 공공체육시설이 무료로 개방된다.

광주시체육회관은 광주시체육회관 내 배드민턴장(다목적관)·탁구장·스쿼시

장, 월드컵경기장 보조경기장(트랙), 국제양궁장, 수원인라인롤러경기장, 전천후게이트볼구장, 첨단대사파크골프장 등 6개 시설을 무료 개방한다.

이들 시설을 이용하려면 평소 400

원~7000원을 내야 했다.

시체육회는 “가정의 달을 맞아 시민들이 가족과 함께 생활스포츠를 즐길 수 있도록 시설을 개방하게 됐다”고 말했다.

문의 ▲광주광역시체육회관 604-1821 ▲월드컵경기장 604-2616 ▲국제양궁장 604-2616 ▲인라인롤러경기장 959-9950 ▲전천후게이트볼구장 372-3237 ▲첨단대사파크골프장 954-7330. /김지을기자 dok2000@

## 40초 안에 샷을 하라

### 유럽골프, 농구 ‘샷 클락’ 계기판 설치...초과맨 1벌타

유럽프로골프 투어 대회에 농구의 ‘샷 클락’ 계기판이 설치된다.

6일부터 이틀간 영국 세인트 알반스의 센츄리언 클럽에서 열리는 유럽프로골프 투어 골프 식스스 대회는 16개 나라가 2명씩 조를 이뤄 실력을 겨루는 국가대항전 형식의 이벤트 대회다.

4개국이 4개 조로 나뉘어 벌이는 조별 리그가 6일에 열리고, 8강 토너먼트는 7일 진행되는 방식이다.

6개 홀 경기로 승패를 정하기 때문에 ‘골프 식스스(Golf Sixes)’라는 명칭이 붙었다.

특이한 점은 농구의 공격 제한 시간처럼 ‘샷 제한 시간’을 두기로 한 점이다.

선수당 40초의 시간을 주며 이 시간을 넘기면 1벌타를 부과한다. 샷 클락 계기판을 티그라운드와 페어웨이, 그린에 설치한다는 것이다.

지난주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쥐리히 클래식에서는 ‘녹장 플레이’를 벌인 브라이언 캄벨(미국), 미켈 앙헬 카르바요(아르헨티나) 조에게 벌타가 부과됐다. PGA 투어에서 ‘녹장 플레이’를 이유로 벌타가 부과된 것은 1995년 이후 22년 만이었다.

‘골프 식스스’에서는 또 선수들이 1번 홀에 입장할 때 대형 전광판을 통해 음악과 화면을 제공하는 등 다른 대회와는 색다른 분위기가 예상된다. /연합뉴스